

전기안전관리대행 세미나

정리/대한전기기사협회 홍보과

지난 11월 12일 도로교통안전회관 강당에서 전기안전관리대행 관계자 50여명과 내빈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전기안전관리대행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권용득 회장은 개강식 인사말을 통해 「초기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의 정착을 위해 대행회원 상호간 이해와 협조로서 전기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혀 재난방지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일본의 전기안전관리 제도,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제도와 그 전망, 대행사업체 운영 및 대행사업장 관리사례, 대행사업체 실태 및 전기안전관리업무 등 5개 분야의 주제발표를 하였다.

아울러, 이 행사는 대행업 전반에 걸친 현황에 전

일본은 사용전 검사는 관청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안전관리업무는 설치자의 자주보안체제를 강조하는 자율기능이 강화돼 있음을 발표하였다.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제도와 그 전망’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선 동양전기 안전관리 박길부이사는 대행업은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혼재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긍정적 측면으로 첫째, 초창기 대행업 종사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대행업 제도의 조기정착을 가능케하고 둘째, 대행사업장이 연 평균 8%의 성장을 하고 있으나 '91년 7월 20일 현재 대행회원 926명이 11,416개소를 대행하고 있어 평균기중치 21.9점으로 1인당 월수입이, 110만원(1점평균 5만원 계상)에 불과해 60점을 모두 채운다해도 퇴직충당금, 재해보상비 등을 감안하면 체산성이 없다고 밝혀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또한 대행업을 놓고 기득권이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대행사업체의 치열한 경쟁을 수수료의 덩핑, 사업장의 안전점검과 관리의 허점이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박길부씨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대행사업체간의 동업자의식 전환으로 상호 기술경험 및 정보의 교환으로 서로 향상된 점검서비스 제공,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대행수수료의 인상과 대행사업체의 가중치 상향조정,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대행업무와 단계적 영역축소, 대한전기기사협회의 대행관련 선진기술과 정보의 제공 등을 주제발표 하였다.

한편, 한국전기안전기술공사 노건호 기술이사는 대행사업장의 효율적인 유지방법으로 대행업의 초창기에는 조직적, 체계적 계획과 분석의 토대위에서 사업장을 확보하고, 이후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수용가에



▲ 개강식 인사말을 하고있는 권용득회장

망을 살피고 대행업 영위자들의 고충을 청취함으로써 대행업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계기가 되었다.

첫 주제발표자로 나온 장운격 부회장은 「일본의 전기안전관리 제도」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나 대행업과 관련 대행자외에 보안센터를 뒤, 설비의 사고에 이종으로 대비하는 안전장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게 신뢰를 심어줘야한다고 발표하였다.

‘대행사업체 운영 및 대행사업장 관리사례’를 주제 발표한 대한전기안전관리 대전공사 오연진 대표는 대행사업체 운영목표를 대행설비 안전확보에 두고 대행설비관리에 있어서 주인 의식을 갖고 신속한 대응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오연진씨는 대행사업체들이 선구자적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대행업자들의 손길이 닿을때 비로소 공신력을 획득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 주제발표에 나선 이성실 한국전기보안관리소 대표는 ‘대행사업체 실태 및 전기안전관리업무’라는 내용을 통해 대행관련 규정이 변경된지 7개월째인 지난 7월 현재 대행업체 및 개인대행자의 시장 점유율은 30%를 차지,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으나 1인당 건수는 전기안전공사의 3분의 1정도인 13건에 불과, 저수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행업자들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대수용자 봉사정신을 비롯해 투철한 사명감, 우수한 기술과 책임의식, 대행업체간의 화합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 자유토론에서 답변에 나선 김성모 상근이사

안전관리대행 세미나의 주제발표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자유토론 시간에서 대행업 현안점 등에 관해서 질의를 협회 관계자에게 요구하였다.

이날 질의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 일본의 경우 대행업체의 보조원 채용 제도가 있는지?

답 = 일본은 대행업체가 없으므로 보조원은 해당이 없다. 대리자를 선임토록하므로 24시간 비상 대기근무자가 있도록 되어 있다.

문 = 대행업체 보조원 채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는 바, 그 개선책은?

답 = 대행업체에서 현재로써는 보조원 채용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줄 안다. 그러나 협회는 현재 대행업의 현황 및 실태 파악 등으로 보조원의 자격 및 채용에 대한 개선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개선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다.

문 = 안전공사에 대한 기술인력의 경력 및 보조원 확보에 대한 제제는?

답 = 전기사업법 및 동자부 안전관리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안전공사도 대행업체 자격에 준용토록 되어 있는 바, 현재 협회는 안전공사 기술인력에 대한 경력심사를 하여 적합한 자만 선임토록 하고 있으며, 보조원에 대한 사항은 법과 동자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대행사업체와 동일하게 준용토록 할 것이다.

문 = 대행업체에 대한 인력현황 감시기능은 어느 부처에 있는가?

답 = 동자부는 최근 시·도지사에 공문(91.11.20)을 발송하여 시·도지사의 주관하에 대한전기기사협회와 공동으로 대행업체에 대한 점검·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 = 대행업체 및 대행자의 통폐합에 대한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지?

답 = 일본과 대만의 대행제도의 장점만을 혼합한 대행업 제도는 초기단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와 더불어 지역 특성에 맞게 통폐합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바, 많은 검토 및 연구를 해 봐야 하며 현재 전북에서는 한전사업소 단위 지역별로 통폐합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것을 모델로 하여 검토될 수도 있다. 그



세미나후 참석자 기념촬영 ▶

동안 대행업체가 탄생하여 대행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검토 및 해외의 대행제도에 대한 연구, 검토 후 대행업체간에 자기 자신만의 이익추구를 버리고 공동관리체제로 보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문 = 전기안전관리담당자 해임 후 15일 이내에 재선임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어떤 행정 조치를 취하는가?

답 = 협회에 전산시스템이 도입되어 완성된 단계에서 현재 전국의 자가용 전기설비업체 명단이 입력되고 있으며 조만간 전산망에 의해 적발된 위법 사항은 행정관청에 고발조치하여 행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문 = 대한전기기사협회 회원의 대행회비가 상주기사에 비하여 비싼 이유는?

답 = 대행사업체가 태동하여 막 걷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재정상 어려움이 있을 줄 안다. 그러나 설립 초기인 당협회 또한 선·해임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도입, 지부사무실 확보 및 직원채용 등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으며 실제 선·해임 확인 건수 43,000여건중 대행확인 건수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한군데 상주하는 자와 비교할 때 60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아주기 바람에, 협회는 이 선·해임 업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선·해

임 사용지대금 및 수속비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당 협회에서는 현재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막대한 지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92년도에는 대행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 지도 등 많은 예산을 할당하여 추진할 것이다.

문 = 협회가 대행업체를 위해 할 일은 무엇인가?

답 = 협회는 회원들을 위해 존속하며 회원들의 목표는 협회의 목표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법제정 초기에 대행업체가 발족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선·해임 확인기관으로서의 협회는 중립적인 입장이 됨으로써 법률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행하므로 대행업체 시각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당 협회에서는 국내의 대행업이 발전하도록 연구, 검토하여 정부에 건의할 것이며, 참고로 협회는 '92년도에는 대행업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세부업무를 추진 할 계획이다. 그 세부업무 내용을 보면, 첫째, 세금·보험 등에 관한 조사연구 둘째,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원천징수 셋째, 점검서식 일원화. 규정연구·점검수수료책정 넷째, 각 시·도와 협조하여 대행업체에 대하여 안전점검·지도를 할 것이며 법의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시정 등을 정부에 건의하겠다.